

속속 풀리는 현안... 광산구 변화·발전 앞당긴다

미래차 국가산단·어등산 이어 최대 속원 군공항 이전 '청신호' 박병규 구청장 "소중한 기회 적극 활용해 지역 혁신 이룰 것"

민선 8기 들어 광주 광산구의 해묵은 지역 현안들이 잇따라 풀리면서 대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시의 핵심 현안 중 광산구와 관련한 것만 13건에 이른다. 특히 광주 시민의 숙원으로 꼽히는 '대형 현안 문제' 대부분이 광산에 몰려 있다.

이 중에서도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광주송정역 개발 등 '4대 현안'의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이들 현안이 광산구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현안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현실과 맞지 않은 현행 법 제도 등의 문제로 수년에서 수십 년간 장기 표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던 이들 대형 현안사업들이 민선 8기 들어 하나 둘씩 해결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특히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대표적이다. 국가 지원과 종전 부지 개발을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5일 공포된 것이다.

군공항 이전의 최대 난제 중 하나로 지목된 '기

부대 양여' 방식의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정부 주도로 이전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전 부지 선정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지만, 특별법 시행은 군공항 이전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7년 간 걸뒀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도 오는 8월 중 사업자 공모와 함께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세계퍼퍼티가 어등산에 '스타필드 광주'를 건립하겠다는 투자 의향을 제출하고, 광주시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는 '제3자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광산구에서 첫 '2023 자치구 소통의 날'을 연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주요 현안 중 3분의 2가 광산구 이야기"다. 광산의 다른 이름이 광주, 광주의 다른 이름이 광산"이라며 "그동안 축적된 광주의 힘, 간절함 덕분에 여러 일들이 잘 풀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어등산 개발과 관련해서도 "전방·일신방직 부지도 복합소풍물을 한다는데, 어등산도 하느냐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신다"면서 "당연히 어등산도 할 것"이라며 어등산 복합소풍물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강 시장은 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선 "특별법 통과로 정부도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시스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2023 광산구 소통의 날에서 광산구와 밀접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템이 구축됐다"며 "시행령이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형 현안 외에도 광산구의 과밀학급 교육문제 등 각종 지역 현안도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모양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광산구 고교 신설 추진, 광산의 경제지형을 완전히 바꿀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등 큰 호재까지 더해지며 광산구가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산구는 지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

도록 광주시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적 대응,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단군 이래라 해도 될 만큼 광산구가 광주시에 편입(1988년)된 이후 역대 가장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면서 "광산이 광주의 미래고, 광주의 중심이라는 것이 현실이 됐다.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해 광산의 획기적 변화와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행복나루노인복지관 위너스클럽 H 아카데미 협약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행복나루노인복지관이 최근 위너스클럽 H 아카데미와 지역사회 고령시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복지관 김경옥 관장, 아카데미 허양임 대표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복지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 시민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위한 정기 이미지 봉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산구 '거꾸로 멘토링' 결연선·후배 공무원 소통 활성화

광주 광산구는 "2030세대 후배 공무원들과 4050세대 선배 공무원이 멘토-멘티가 돼 조직 소통과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거꾸로 멘토링'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거꾸로멘토링'은 선후배 간 위계를 탈피하고 젊은 공직자가 멘토가 돼 선배 공무원에게 최신 문화와 변화된 가치관 등을 알려주는 것이다.

광산구는 전체 공직자 중 20~30대 비율이 58.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꾸로멘토링'에는 광산구 9급 공무원 18명이 멘토, 6명의 6급 팀장이 멘티로 참여한다.

지난 3~4일 결연식과 세대소통 프로그램 등 집합 교육을 마쳤으며, 5월 한 달간 조를 나눠 자율적으로 레크리에이션 등 모임 활동을 진행한다.

이달 말에는 참여자의 느낀 점을 공유하는 '소감공유회'도 열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거꾸로멘토링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광산구 조직의 소통, 신뢰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선후배 구분 없이 모든 광산구의 공직자가 서로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비만예방 기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비만예방의 날' 기념 유공기관 선정...비만률 3년째 감소

광주 광산구는 "지난 8일 '2023년 비만예방의 날' 기념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100개 이상 국가 및 80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세계비만연맹'은 매년 3월 4일을 '세계비만의 날'로 지정하고 비만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비만연맹에 가입, 보건복지부가 시민 비만예방 및 관리에 공헌한 지자체를 포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광산구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의 건강 생활에 공백이 없도록 '걷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2만7000여 명의 걷기 실천을 이끌어낸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

또 비만위험이 큰 갱년기 여성을 위한 '중년여성 건강체중관리' 특화 프로그램인 '완전 소중한 당신, 건강만들기'를 운영하고, 지역 아동에 대해서도 보건소·학교·가정을 연계한 '건강한 돌봄 놀

이더'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생애주기 인구특성에 맞춘 비만 예방 프로젝트는 실제 성과로도 이어졌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한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광산구 비만율은 2021년 33.5%에서 2022년 31.4%로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 관계자는 "비만은 단순한 체중 증가, 외모와 관련된 것을 넘어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질한의 발생 원인이 된다"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해 선제적으로 비만도 예방하고, 사회·경제적 손실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 공모장덕도서관 선정...광주 유일

광주 광산구 장덕도서관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전국에서 총 41개 도서관이 응모해 13개 도서관이 선정됐으며, 광주시 27개 공공도서관 중에선 장덕도서관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장덕도서관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3000만원을 지원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북 콘텐츠를 확보하고, 최첨단 ICT(정보통신기술) 기기를 활용해 전자책, 영상자료, 오디오북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장덕도서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디지털 기반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장덕도서관은 현재 5000여 종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바일과 광산구립 통합도서관(장덕도서관)누리집을 통해 이용되는 전자책도 연간 1만6000여 권에 달한다. 도서예약 서비스 이용 실적은 2만2000여 건, 누리집 접속자도 연간 89만 6000여명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기존 디지털 자료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데이터를 융합한 최첨단 교육, 문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생산자·소비자 상생 '농부장터' 13일 새별초 후문

광주 광산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새별초등학교 후문 통학로에서 '신순환 푸드플랜' 기반 마련을 위한 '농부장터'를 연다. 이번 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교류하며 먹거리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다.

광산구 중소기업, 가족농, 사회적경제 기업 등이 참여해 제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공예품 등을 판매한다.

공공급식에 납품되는 친환경 농산물 장터를 비롯한 뜻깊은 친환경농산물, 우리밀 제품, 로컬푸드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농부장터, 수공예품 판매 체험과 전통놀이 체험, 우리농산물 그리기, 중고물품을 활용한 자원순환 장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활력, 먹거리 순환을 위한 '푸드플랜 상생장터'를 열게 됐다"면서 "신선하고 저렴한 지역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장터에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동행재활요양병원

동행재활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의학·한의학 협진
의학·한의학 협진을 통해 침치료, 부항, 침약 등의 한방 치료를 제공하여 회복과 증상완화를 돕습니다.

질화에 맞는 치료 제공
중추신경계 치료와 근골격계 추나 치료, 통증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기능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환자맞춤별 치료를 통하여 회복과 통증완화를 돕습니다. ”

일반 요양 **중풍 재활** **수술 후 재활**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를 병원 1층에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 공유
환우분의 곤항 및 일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광주역 앞 (신안동 2-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 062) 720-2000